

## 노년기 삶의 양식과 적용: 한국여성노인들의 사례분석

강 유 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이 연구는 여성노인들이 노년기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즉 어디에서 의미를 찾고 있으며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노년기는 사회와 제도에 의해 덜 구조화되기 때문에, 노년기를 일컬어 '역할이 없는 시기'라고 한다. 이렇게 노인들의 일상의 많은 시간이 노인 자유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노인이 어떻게 노년기 삶을 꾸려나가는가의 문제는 노년기 적응과 연결이 되는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노인들이 노년기 삶을 구성해 가는 과정과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은 노인들의 주체적인 적응전략을 드러냄과 동시에 노년기 성공적 적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6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14명의 할머니들을 심층 면접하여 삶에 대한 노인들의 해석과 의미부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면접노인들의 노년기 삶에는 '가족', '외부활동', '자기'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중심이 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노년기 삶의 양식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가족지향형'의 노인이다. 현재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가치를 가족에 두고, 생활의 큰 축이 가족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된 유형의 노인들이라 하겠다. 둘째, '사회적 활동지향형'을 들 수 있겠다. 현재 삶의 중심이 가족의 외부 활동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의 면접노인들에게 '가족'과 '자기'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노년기 삶의 가치와 재미를 가족 밖의 구체적인 외부 활동에서 찾는 유형의 노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기중심 지향형'이 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나'에 집중된 유형을 말한다. 가치가 있고 할 만한 일이 결국 '나' 자신에게 집중되었으며, '나의 감정변화, 건강의 변화 등에 매우 민감하다. 정리하면, 현재 여성노인들의 삶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삶의 양식이었으며, 삶의 양식은 노인들이 세 가지 삶의 중심요소, 즉 '가족'과 '활동', '자기'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노년기 삶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는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노인들의 주체적인 적응전략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접노인들은 현재의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반추의 과정'(life review)을 경험하며, 노년기에 잘 적응하는 노인들은 이러한 반추의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인생무대인 노년기에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유형·무형의 '일'(things worth to do)을 발견한 노인들이었다. 이때 노인을 둘러싼 환경 역시 노인들의 주관적 의미부여의 작용만큼 노년기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노인들이 속한 가족과 사회는 이들이 자신의 '쓸모'를 찾고 긍정적으로 노년기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개인의 노력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적 장이 되고 있다.